

# 최대 10조... 교보생명·오일뱅크 등 대어 'IPO 도전'

**교보생명** 2조 규모 60년만에 IPO  
**바디프랜드** 1분기, 4천억 규모 예상  
**호텔롯데** 신동빈 복귀... 상장 속도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장 공모규모는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국내 주식시장 환경이 녹록치 않아 IPO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다만 교보생명, 현대오일뱅크 등 대어급 회사가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만큼 공모 규모는 전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IPO 시장 규모는 최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 단위 공모규모에 이르는 대어급 기업들이 기업공개에 나서면서 규모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상장으로 재도약**

우선 교보생명이 창사 60년 만에 IPO에 나선다. 오는 2022년 새로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대비하기 위해선 자본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9년 기대되는 신규 상장사(예상)> /각사

기업	주업종
현대오일뱅크	석유 정제품 제조업
교보생명	생명보험업
바디프랜드	의료용 기기 제조업
이랜드리테일	백화점 할인점 운영 등 유통업
한국리테일 홀플러스리츠 1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카카오게임즈	게임개발
노랑풍선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웹캐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현대오토에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교보생명은 이르면 1분기 중 공모주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 규모를 확정하고 하반기 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마무리한다. 업계에서 전망하는 공모규모는 최대 2조원 수준이다.

국내 안마의사 시장 1위 업체 바디프랜드는 이르면 1분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게 특징이다. 지난 2012년 151억원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은 5년 새 5배 이상 증가했다. 증권가에서는 바디프랜드 기업가

치를 2조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공모 규모는 4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랜드리테일도 올 상반기 중 상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수익성 대비 차입금 부담이 큰 이랜드그룹은 이랜드리테일 상장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이랜드리테일은 조 단위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만간 공모 규모 및 일정 등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야말로 호텔롯데가 주식시장에 상

장할 '적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호텔롯데는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검찰 수사도 2016년부터 상장 작업이 중단된 상태지만 지난해 10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롯데 계열사 상장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롯데 케미칼의 롯데지주 편입·금융계열사 매각 등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호텔롯데 상장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업계는 호텔롯데의 공모금액을 6조원대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0년 삼성생명 상장 당시 최대 기록(4조8881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공모규모다.

◆ **올해도 상장 도전**

공모규모 약 2조원. 지난해 IPO 시장 대어로 꼽힌 SK루브리컨츠의 재도전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이 뿐만 아니라 SK그룹은 SK실트론, SK바이오팜 등 3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계열사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감리 여파로 주춤했던 현대오일뱅크와 카카오게임즈 상장 재도전 가능성도 높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11월 증

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경징계인 '주의' 조치를 받는데 그쳐 부담을 덜어낸 상태다. 지난해 8월 상장 예비심사 신청 후 승인 기한인 오는 2월 중순까지 공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오일뱅크는 기업가치 8조원, 공모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최대 2조원대 가치를 평가받고 있어 올해 코스닥시장 최대어가 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12월 상장을 목표로 했던 홀플러스리츠는 올해 2월 코스피 상장 목표로 목표를 바꿨다. 내수 경기 침체로 오프라인 상업시설에 투자하는 리테일 리츠에 대한 투자심리가 좋지 않은 분위기를 의식해서다. 공모 규모는 1조7274억원으로 상장 시 최초 1조원대 리츠 상장사가 될 전망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올 주식시장 전망이 밝지 않지만 미래가치가 충분한 기업의 경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올해 IPO시장도 상장사에 따라 차별화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증권업계 올 화두 '디지털·시너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새해 화두는 '디지털'과 '시너지'다. 디지털화(化)를 통해 새로운 영업 구조를 짜고, 녹록치 않은 대내외 환경 속 '융합'과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 내겠다는 전략이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2일 지난해 7000억원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거듭난 것에 대한 성과를 자축하고 올해는 "글로벌 투자 전문 기업으로서의 비약적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부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미래에셋대우는 글로벌, 투자전문, 연금, 디지털이라는 4개의 큰 축을 가지고 경영을 해오고 있다"면서 "해외와 국내의 융합, IB와 채널의 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회사차원에서 사모채권 중개 플랫폼을 통한 IB·자산관리(WM) 융합 비즈니스 활성화 등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해 목

표를 초과 달성하는 실적을 거둔 것에 대해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대내외 환경이 어려운 올해는 디지털을 활용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채 사장은 "아직까지 우리는 주식 거래 위주의 플랫폼에 치중되어 있지만 자산관리 영업이나 기업금융, 트레이딩에서 지원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을 접목하고 활용해 업(業)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며 "디지털을 활용한 차별화된 고객경험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기술(IT) 인프라의 유연함이 경쟁사별 차이를 유발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올해부터 대표이사로서 새로 선임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성장 전략으로 '계열사 및 본부 간 시너지 일상화'를 꼽았다. 한국투자증권은 3년 연속, 업계 최대 세전 손익과 최고 영업이익률(ROE)을 기록하고 있지만 경쟁사와 비교해 계열사 지원 등 외부 도움이 제한적이다.

정일문 사장은 '시너지 일상화'라는 용어에 대해 "시너지 극대화 대신 일상화라 표현한 이유는 시너지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 생존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금융 경쟁력 강화도 주문했다. 정일문 사장은 "4차 혁명으로 대변되는 IT기반 응용기술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까지 파고들어 우리의 생활 양식을 송두리째 바꿔나가고 있다"면서 "디지털 금융에 기반한 혁신적인 지원체계 정립은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생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규 IBK투자증권 대표는 올해 경영 목표로 "비전을 향한 전진, 내실을 통한 위험요인 극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형과 복합점포 확대를 통한 IBK금융그룹 시너지 영업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IR 컨설팅 강화 ▲선제적인 위험 관리를 통한 리스크 최소화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서명석·황웨이청 유안타증권 공동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작년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한 단계 더 진화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주문했다.

두 대표는 "타사 대비 경쟁력을 가진 티

증권사 CEO 신년사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글로벌 투자 기업으로 비약할 것"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디지털 활용으로 업 경쟁력 올려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시너지, 특별함 아닌 일상적인 것"

레이더를 보다 진화(進化)시켜서 신규 고객 유입과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석종 KTB투자증권 사장은 올해 장외파생상품 시장 진출 등 새로운 사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강조했다.

최 사장은 "올해는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진출하여 전문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구조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고, 인하우스 헤지펀드 운용을 위해 전문사모집합 투자업 등록을 추진하고 관련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면서 "새로운 상품은 우리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존 비즈니스 부문과 시너지를 내고,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업지 기자

## "바이오·IT 등 업종별 상장 심사체계 도입"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2019 증권·파생상품 개장식

"올해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코스닥 시장의 역할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2019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바이오, 정보기술(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 심사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올해 중점 업무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역할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투명성·공정성 제고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KRX) 이사장

정 이사장은 자본시장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의 적용대상 종목을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

은행(IB)을 시장조성자로 유치해 시장 유동성과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시장조성자로 유치할 계획이다. 또 FANG(Facebook·Amazon·Netflix·Google)처럼 상장 이후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ESG(사회적책임기업) 투자 확대도 꾀한다. 그는 "상장 이후에 성장이 가능한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을 자본시장이 수용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재검토해 새 환경에 맞는 상장요건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kmh@

## KB증권, 박정림·김성현 대표이사 취임

KB증권은 2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새 대표이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박정림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하나의 KB증권을 위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정립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자"며 "고객으로부터 깊이 신뢰받는 KB증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업과 화합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 개진의 자리를 만들어 치열하게 논의하고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현 사장은 "화합의 KB증권·혁신의 KB증권·강한 KB증권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One) KB증권이 되기 위해 화합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분



박정림 KB증권 대표



김성현 KB증권 대표

간 협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방식으로 남은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인정과 직원의 탁월한 업무수행 역량을 갖춘 강한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